

제 1 교시

국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3

[01~02]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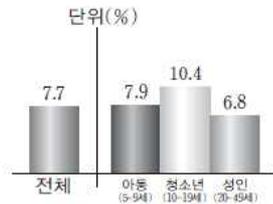
승연: 정훈아, '인터넷 중독의 실태'에 대한 발표 준비 좀 했어?

정훈: 그럼, 어제 자료를 찾아봤지.

승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웃으며) 역시 내 친구! 어떤 거야?

정훈: (자료를 보여 주며) 이 그래프 좀 봐.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  
(만 5~49세,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기반)



전체 인터넷 중독률이 7.7%나 되고,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높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도 우리는 고등학교생이니까 청소년의 중독률에 주목하는 게 좋겠지?

승연: 글썄, 암튼 이 자료 괜찮은 것 같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언제 조사한 거지?

정훈: 잠깐만.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2011년에 조사한 거래.

승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가 궁금한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 발표하는 건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정훈: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볼까?

승연: 음, 그것보다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어떨까?

정훈: ㉢(그러면 발표 제목을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예방책'으로 해야겠네.

승연: 좋다. 막연하게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라서 좋을 것 같아. ㉣(역시 나는 훌륭한 친구를 두었

어!

정훈: 하핫, 뭘 그런 걸로……. 어제 자료 조사하면서 보니까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표가 있던데. 너랑 나랑 진단해 보고 그것도 발표에 넣어 보자. 그러면 인터넷 중독의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 볼 수 있을 거야.

승연: 지금 생각난 건데, 도서관 같은 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인터넷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무한정 인터넷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훈: 건전한 취미 생활을 가지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겠어. ㉤(인터넷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 세상에 많다는 것을 경험하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진 않겠지?)

1.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1)

- ① ㉠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② ㉡은 대화 참여자들이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즉각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화법의 상호 교섭적 성격을 보여 준다.
- ④ ㉣과 같이 상대방을 칭찬함으로써 대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적 관습이나 규범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위 대화에 나타난 발표 준비 과정에 대해 조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3점]

- 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조사 연도뿐만 아니라 조사 기관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어.
- ②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조사하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 ③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인터넷 중독 예방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발표자들의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표를 전체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소수의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아.
- ⑤ 청소년의 중독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부의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를 보충하는 것이 좋겠어.

# 국어 영역

[03~04] 다음은 '청소년 가출'에 대한 심포지엄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가출 청소년 쉼터의 소장으로 계신 김○○님과 ○○○고등학교 상담부장 박○○ 선생님을 모시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 토의자는 먼저, 청소년 가출에 따른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김○○ 소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김 소장: 청소년 가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가출 청소년의 범죄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 새 가출 청소년이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가출 청소년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출 청소년들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교사: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 개인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가출 기간도 길어지고,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출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출 청소년들이 학교에 장기 결석 또는 잦은 결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출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품성을 함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사회자: 청소년 가출이 사회나 청소년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가출 원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 소장: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통계 조사와 저희 쉼터에 온 가출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소통 부족으로 생기는 갈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의 학대' 등이 청소년을 가출하게 만드는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교사: 제가 학교에서 가출 청소년을 상담해 보니, '공부와 성적으로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유롭지 못한 학교생활에 대한 거부감'도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었습니다. 상담 자료들을 보니 가출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끼리의 집단적 생활이 청소년 가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가출 예방 방안 및 청소년 가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들어 보겠습니다. 토의자의 발표 후에 청중 여러분들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중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략)

3. 위 토의의 사회자와 참가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③

① 사회자는 토의 참가자들에게 의제를 제시한 뒤 토의를 진행

- 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청중들이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토의 참가자들은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발언하고 있다.
- ④ 토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발언하고 있다.
- ⑤ 토의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의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4. 토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토의 참가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④

- ① 김 소장: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으로 청소년 가출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 ② 김 소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③ 김 소장: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 ④ 박 교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⑤ 박 교사: 가출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품성을 기르고, 가정과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대화로 볼 수 있는 것은?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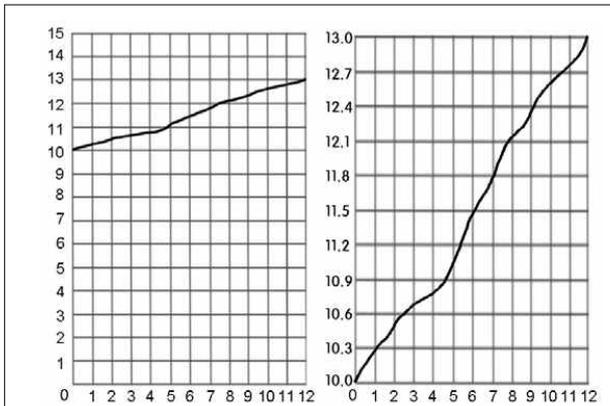
< 보 기 >

대화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원리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그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를 '양의 격률'이라 하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원리를 '관련성의 격률'이라고 한다. 또 명확한 의미를 간결한 표현에 담되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원리를 '태도의 격률'이라고 하며,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원리를 '질의 격률'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일부러 이를 어김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표현의 재미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 ① 갑숙: 너 키가 몇이니?  
을화: 우리 언니가 170센티미터이고 내가 173센티미터야.
- ② 병만: 수학 공부 많이 했어?  
정수: 아마 내 몸을 꼭 짜면 숫자가 쏟아질걸.
- ③ 무진: 아까 어디 가는 거였어?  
기주: 네가 그건 알아서 뭐 할래?
- ④ 경민: 나 돈 좀 잠깐만 빌려 줘.  
신지: 며칠 전에 문제집을 사느라 용돈이 바닥났어.
- ⑤ 임호: 미안하지만 그 불펜 좀 주워 줘.  
계상: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 국어 영역

[06~0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에 제시된 두 그래프는 서로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왼쪽의 그래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두 그래프는 같은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그린 그래프이다.

같은 그래프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래프에 적힌 숫자를 살펴보자. 왼쪽 그래프의 세로축은 0부터 시작해서 한 눈금에 1씩 증가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의 세로축은 0이 아니라 10부터 시작하여 한 눈금에 0.3씩 증가하고 있다. 똑같은 통계 수치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두 경우처럼 통계를 제시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다른 그래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약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오른쪽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를 과장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통계의 숫자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이 두 그래프처럼 통계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요즘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글을 접할 때, 글쓴이가 그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통계 관련 내용이 사실을 ㉤기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비판적인 수용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6. 윗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

- 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글의 주제를 전달한다.
- ② 통계 수치를 종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③ 시각 자료의 비교를 통해 논지를 뒷받침한다.
- ④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여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 ①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 ②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정보만을'로 고친다.
- ③ ㉢은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④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으로 고친다.
- ⑤ ㉤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왜곡할'로 수정한다.

[08~09] '전력 수급 위기와 전기 절약'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 < 보기 1 >

글쓰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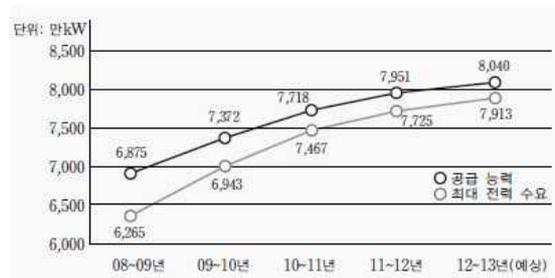
- 문제의식: 최근 들어 전력 수급의 위기가 대두되고,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글의 목적: 전력 수급 위기에 대처하는 전기 절약 방안을 소개한다.
- 자료 수집: 최근의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력 공급 능력과 전력 사용량을 조사한 자료, 전기 절약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전력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
- 서술 방향: 전력 수급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확인하고 문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 보기 2 >

(가) 전력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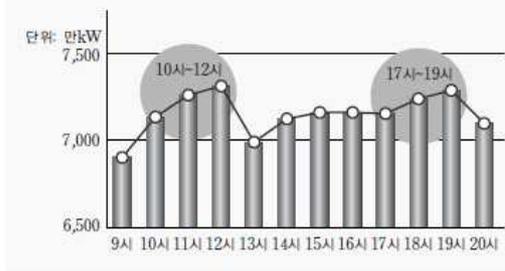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최대 전력 수요(만 kW)	6,279	6,680	7,131	7,313
공급 예비율(%)	9.1	7.9	6.2	5.5

(나) 2008~2013년 동계 최대 수요·공급 능력 추이



# 국어 영역

(다) 시간대 별 전력 사용량 추이



(라) 컴퓨터 사용 시 전기 절약의 방법과 효과



8. 예상 독자에 따라, <보기 1>을 실현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sup>8)</sup>

- ① 전력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력 수급 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사례를 보고하는 글을 작성한다.
- ②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력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작성한다.
- ③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력 수급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작성한다.
- ④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 실태를 알리고 다양한 대체 에너지 확보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작성한다.
- ⑤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력 수급 위기를 설명하고 전력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한다.

9. 글쓰기 과정에서 <보기 2>의 자료 활용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9)</sup>

- ① (가)는 최근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해야겠군.
- ② (나)의 그래프를 활용해 독자들로 하여금 전력 수급 위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군.
- ③ (다)는 전력 수급 위기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해야겠군.
- ④ (라)와 유사한 자료를 추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노력으로 전기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군.
- ⑤ (가)와 (나)는 유사성이 높은 자료이므로 필요에 따라 둘 중 하나만 활용해도 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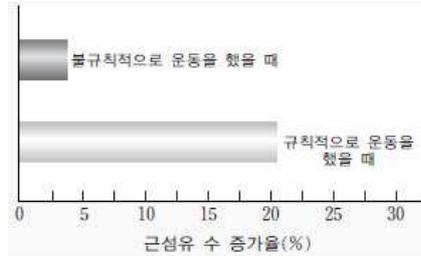
10. <보기>는 탐구 대회에 참여하는 한 학생의 연구 보고서 초안이다. 이 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10)</sup>[3점]

##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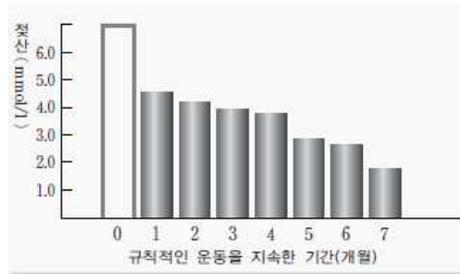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 I. 연구기간:2013년××월××일~××월××일
- II. 준비물: 각종 운동 기구 등 필요한 물품 일체
- III. 연구 결과

(가) 근섬유 수의 증가



(나) 젖산 축적량의 변화



IV. 결론

- (1)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음.
- (2) 젖산이 피로 물질임을 고려할 때,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면 피로를 덜 느끼게 됨을 III-(나)로 알 수 있었음.

- ① I의 앞에, 이 연구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관한 설명을 넣어 주는 것이 좋겠어.
- ② II에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물품의 목록을 더 자세히 적어 주는 편이 낫겠어.
- ③ III의 앞에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④ III-(가)를 고려할 때,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지구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IV-(1)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 ⑤ IV-(2) 이외에, III-(가)에 대한 분석 결과, III-(가)와 (나)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등도 IV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 국어 영역

11. <보기>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 보 기 >	
능동문	피동문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
포수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

- ①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수 있군.
- ②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군.
- ③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능동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에 부사격 조사가 붙는군.
- ④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능동문과 피동문 사이의 미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군.
- ⑤ 피동 표현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군.

12. 다음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12)

학생: 한글 맞춤법 제1항에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말이 생소하긴 보구나.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머칠, 개구리'처럼 표준 발음법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지. 이 방법은 말의 원형을 일일이 밝힐 필요 없이 그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 ㉠ )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란 다. 그리고 이러한 표기 방식을 표음적 표기라고 하지. 하지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단다. 예를 들면 '물이다'라는 말은 [우리다] 로 발음되는데, 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 은 '물이다' 혹은 '우리이다'로 이해하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물이다'와 같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의미란다. 그리고 이러한 표기 방식을 표의적 표기라고 하지.

학생: 아,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 ㉡ )을 배려한 표기 방식이군요. 그래서 '꿀이', '칼을'처럼 ( ㉢ ) 표기를 하는 것이군요.

- |            |          |     |
|------------|----------|-----|
| ㉠          | ㉡        | ㉢   |
| ①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음적 |
| ②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의적 |
| ③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음적 |
| ④ 글을 쓰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의적 |
| ⑤ 글을 쓰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음적 |

13. 학급 누리집에 게시된 글들 중에서 <보기>의 사례를 찾아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3)

< 보 기 >

문장을 이루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 된다. 대표적으로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서술어와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불필요한 성분이 사용된 경우,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① ㉠: 나는 수학을, 내 짝은 국어를 좋아한다.
- ② ㉡: 우리는 가끔 가까운 친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한다.
- ③ ㉢: 나는 오늘 체육 대회에서 우리 반의 참된 진가를 발견했다.
- ④ ㉣: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수업 시간만이라도 좀 조용히 공부하자.
- ⑤ ㉤: 애들아, 이번 체육 대회에서 반드시 2반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 알지?

14. 다음 대화 상황에 나타난 호칭어나 지칭어의 쓰임에 대해 조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대화 1	어른: 자네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 청년: 네, 선친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대화 2	아내: 선희 아빠,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남편: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구려.
대화 3	형수: 삼촌, 결혼 준비는 잘 돼 가요? 시동생: 네, 잘 돼 가고 있어요.
대화 4	직원: 이 제품이 이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기획한 제품입니다. 손님: 그럼 이게 저희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요?
대화 5	부하 직원: 부장님, 제 빙장어른께서 국회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직장 상사: 그래? 자네 빙장어른의 당선을 축하하네.

- ① '대화 1'에서 청년은 '선친' 대신 '가친'이라는 지칭어를 사용해야 해요.
- ② '대화 2'에서 아내는 '선희 아빠' 대신 '여보'라는 호칭어를 사용해야 해요.
- ③ '대화 3'에서 형수는 '삼촌' 대신 '도련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해야 해요.
- ④ '대화 4'에서 손님은 '저희' 대신 '우리'라는 지칭어를 사용해야 해요.
- ⑤ '대화 5'에서 부하 직원은 '빙장어른' 대신 '장인어른'이라는 지칭어를 사용해야 해요.

# 국어 영역

15. (가)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15)</sup>

< 보기 >

(가) 담화 표지는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글에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장치이다. 담화 표지에는 접속어, 지시어, 단어 반복 등이 있는데, 글쓴이는 이러한 담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예고, 강조, 정리, 인과, 예시, 열거, 비교, 대조 등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나) ㉠이번에는 암석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선 역암은 자갈 사이에 모래나 흙이 채워진 암석인데, 알갱이가 굵고 무거워서 멀리까지 이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역암이 발견되는 장소는 육지와 가까운 선상지나 하천, 해안이었다. 빙퇴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빙퇴석은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질들이 주변의 토양과 섞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빙퇴석의 곁에 나 있는 굽힌 자국을 보면 빙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므로, ㉣그 것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암석들을 연구하면 지층이 만들어지던 시기의 환경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 새로운 화제가 제시될 것임을 예고하는 담화 표지이군.
- ② ㉡: 열거되는 여러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내용임을 알려 주는군.
- ③ ㉢: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담화 표지군.
- ④ ㉣: 앞에 나오는 ‘응회암’을 지시하는 담화 표지군.
- ⑤ ㉤: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반복하여 강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말이야.

16. <보기>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글자 운용 규정에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16)</sup> [3점]

< 보기 >

『훈민정음』의 「해례(解例)」에는 글자 운용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다. 첫째, ㉠이어쓰기 는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모든 입술소리에 적용 가능하지만 ‘ㅇ’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나란히쓰기는 초성자들이나 중성자들을 함께 쓸 때 가로로 나란히 쓰라는 규정인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각자 병서,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 병서라고 했다. 셋째, ㉢붙여쓰기는 ‘·, 一, ㅏ, ㅑ, ㅓ, ㅕ, ㅗ, ㅛ’를 초성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ㅣ, ㅌ, ㄴ, ㄷ, ㅌ, ㅋ’를 초성자의 오른쪽에 붙여 쓰라는 규정이다. 넷째, ㉣음절 이루기는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서 음절을 형성한다는 규정이다. 끝으로 ㉤방점 찍기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음절의 왼편에 한 점을 찍으면 높은 소리인 거성, 두 점을 찍으면 낮다가 높아 는 소리인 상성, 점을 안 찍으면 편안하고 낮은 소리인 평성이라는 것이다. 방점 표기와 성조는 대체로 16세기를 거치며 점차 소멸했는데 평성과 거성은 짧은소리로, 상성은 긴소리로 현대 국어에 남게 되었다.

- ① ㉠에 의하면 ‘ㅇ, ㅁ, ㅂ, ㅍ’같은 글자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지만, 그 글자들은 ‘ㅇ’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겠군.
- ② ㉡ 중에서 합용 병서를 제외한 각자 병서만이 현대 국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모습들 중 ‘·’이외의 중성자에 대한 규정은 현대 국어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은 모든 음절이 초·중·종성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낱말의 초성이나 중성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야겠군.
- ⑤ ㉤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어두운 때인 ‘밤[밤]’과 먹는 열매인 ‘밤[밤 : ]’의 방점 표기가 서로 달랐겠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청사기는 전통 도자 양식 중 하나로서 점토[청자토]로 만든 형상 위에 화장토[백토]를 칠한 전후에 바탕을 장식하고 유약을 발라 구워 낸 그릇을 말한다. 고려 말 퇴락해 가던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등장한 분청사기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 널리 쓰였다.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는 가장 순박하고 서민적이며, 일상의 생활 용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적 조형미도 매우 뛰어났다. ㉠

퇴락해 가는 예술로부터 태어나 실용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분청사기는 어떻게 해서 예술성을 얻게 되었을까? ㉡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는 국가에서 도자의 생산과 유통을 관장하였다.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관요(官窯)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 속에 상감청자 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도자들은 왕실과 사원, 귀족층을 위한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품질이 일정했다. 국가의 철저한 감독 아래 도공들은 독점적 생산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신분의 구속과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

14세기 후반 고려 왕조가 쇠운을 맞게 되자, 도공들은 정치적 혼란과 왜구의 침입을 피해 각지로 흩어져 살길을 찾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민간 가마터인 민요(民窯)가 만들어졌다. 민요의 등장은 관요에서 만들어 내던 상감청자가 근본적으로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된 도자기 수요에 부응하여 저렴한 생활 용기들을 제작하는 생산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고, 이전에 사용하던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일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조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숙련된 제조 기술을 보유한 도공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냈으며, 차츰 전통적인 도자 기술에 구애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분장 기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 새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서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상감청자와는 같지 않았다.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전통 도자 양식이 탄생한 것이다.

각 지방에서 ㉠ 이름을 얻은 분청사기들은 왕실이나 관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뛰어난 제품들은 토산 공물로서 중앙에 진상되었다. 그런데 상당수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간에서 착복되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세종 3년에 이르러 진상하는 분청사기 제품의 밑면에 ㉥ 장명(匠名)을 쓰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의 창작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지만, 이 조치는 도자 생산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도공들에게 두터운 전통의 경험 위에 그들 나름의 독특한 장인 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분청사기는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조형미를 갖춘 예술 형식으로 발전해 갔다.

17. 위 글에서 언급한 분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

- ① 공예품으로서의 조형미가 뛰어났다.
- ② 여러 지역의 민간 가마터에서 만들어졌다.
- ③ 품질 관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 ④ 다양한 신분과 계층에서 사용한 생활 공예품이었다.
- ⑤ 상감청자를 계승하였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기법을 획득했다.

18. ㉠의 문맥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18)

- ① 이 고장은 도자기로 이름이 난 곳이다.
- ② 그 식당은 산채비빔밥으로 이름을 날렸다.
- ③ 그는 어릴 적 바둑 신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 ④ 농산물에 지역의 이름을 붙이자 판매량이 늘어났다.
- ⑤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선수들이 참여한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9)

- ① 개인의 창작 욕구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분청사기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③ 국가에서 공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 ④ 도공들의 도자 생산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였다.
- ⑤ 도자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바탕이었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발명의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TRIZ)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서, 구 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그는 4만 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수한 특허는 모두 모순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 후, 알츠슐러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모순을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진다.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여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가벼운 엔진을 장착하면 출력의 한계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트리즈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40가지 발명의 원리가 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 문제에 발명의 원리를 하나씩 적용한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비행기의 속도 문제 해결에 ㉠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는 40번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된 예가 있다. 당시, B1 폭격기의 무게를 줄여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항공기 제작 회사는 금속 재료 대신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 복합 재료로 비행기의 날개를 만들어 폭격기 전체 무게의 15%를 줄였으며 비용도 절감하였다. 이렇게 무게가 줄면 동일한 엔진으로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물리적 모순이란 하나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에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비행 중에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퀴가 없어야 하는 모순을 갖는다. 비행 중에도 바퀴가 동체에 그대로 붙어 있는 초창기 비행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날 초음속 비행기에서 동체의 바퀴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비행 중에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츠슐러는 '시간에 의한 분리' 등 몇 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 '시간에 의한 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비행기 바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륙하기 위하여 비행기는 바퀴로 활주로를 달린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면 바퀴를 동체에 접어 넣어 비행 중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누구나 쉽게 알아내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 모순이다. 그런데 기술적 모순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물리적 모순이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적 모순의 해결도 의미가 있지만 바탕에 깔린 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20.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20)

- ① 문제 상황을 물리적 모순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 ② 트리즈에는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여러 개의 원리가 있다.
- ③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은 하나의 문제 상황 속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 ④ 물리적 모순은 사물의 상태를 시간차를 두고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기도 한다.
- ⑤ 기술적 모순은 주로 복잡한 기계에서 발생하지만 물리적 모순은 그렇지 않다.

21. [A]를 읽고 <보기>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3점]

< 보 기 >  
속도의 향상에는 [ ]가 서로 충돌한다.

- ①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
- ②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
- ③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비행기 무게라는 변수
- ④ 엔진 무게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 ⑤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22. ㉠, ㉡을 적용한 결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2)

- |             |           |
|-------------|-----------|
| ㉠           | ㉡         |
| ① 무게의 감소    | 바퀴의 제거    |
| ② 무게의 감소    | 공기 저항의 감소 |
| ③ 무게의 감소    | 엔진 출력의 향상 |
| ④ 엔진 출력의 향상 | 바퀴의 제거    |
| ⑤ 엔진 출력의 향상 | 공기 저항의 감소 |

23. 위 글을 근거로 하여 만든,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

- ① 발명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트리즈로 발명왕, 특허왕에 도전하세요.
- ② 발명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트리즈 동아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세요.
- ③ 발명은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신입생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 ④ 발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의 끝없는 스카웃 행렬, 트리즈 동아리만의 자랑입니다.
- ⑤ 발명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트리즈 동아리가 새내기를 기다립니다.

# 국어 영역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한다. 지능 지수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은 언어적 능력에서, 남성은 수학적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공격성이라는 특성에서도 성차(性差)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나)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들은 그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유전적 설명에서는 남녀가 몇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적 설명에서는 성차가 사회적·교육적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적인 설명 자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다) 그러나 적어도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적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이런 설명들이 평등이라는 이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유전적 설명이 그런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차에 근거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 설명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그 시도 자체에 반대할 경우, 뜻밖에도 유전적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아주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해서 그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라) 성차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차이는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남성의 공간 지각 능력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전적 가설까지도 여성의  $\frac{1}{4}$ 이 남성의 절반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남성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 설명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너는 여자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든지 너는 남자니까 야기를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성차가 유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렇다. 하물며 단순히 편견에 의존해서 집단 간에 차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24.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24)

- ①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가?
- ② 성별에 따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 ③ 성별에 따른 차별이 옹호될 수 있는가?
- ④ 성별에 따른 차별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

- ① (가): 인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나): 문제에 대한 대립적인 두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반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하고 있다.
- ⑤ (마): 주장을 요약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26.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3점]

- ① 개개인의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 ②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③ 소속 집단보다는 개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 ④ 사람이 어느 한 집단에만 속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⑤ 집단은 개별체가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생성될까? 이에 대한 설명은 과학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 의해 과학적 진술의 의미를 평가하는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언어의 회귀에 대한 연구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을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 국어 영역

과학자들은 언어가 어떻게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지 알고 싶었다. 인디언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언어가 회귀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설명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은 시각 가설, 지구 자기장 가설, 후각 가설과 같은 설명 방법을 생각해 냈다.

시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두 하천인 이사과와 포크에 도착한 언어들을 각각 잡아 표시하였다. 그런 다음 잡은 언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눈을 가리고 다른 집단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인 담수에 방류하였다. 실험 결과, 포획된 곳으로 돌아오는 언어의 수는 두 집단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과학자들은 비둘기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여 집을 찾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언어도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가설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지구 자기장 가설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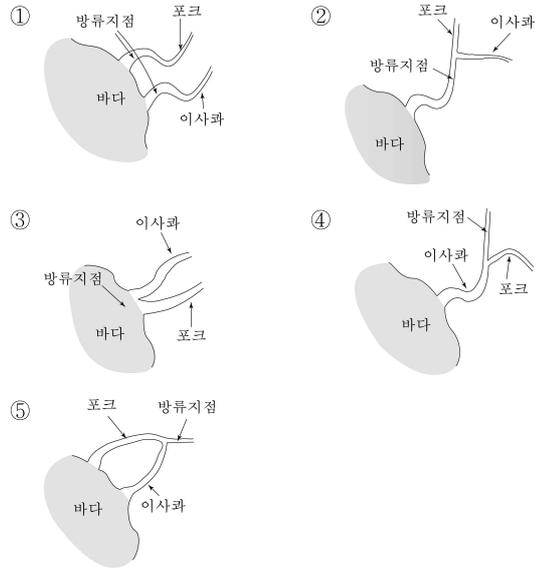
과학자들은 뱀장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후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각 가설을 검증한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두 하천에서 언어를 잡아, 한 집단은 코마개를 하고 다른 집단은 코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언어들을 방류한 후, 산란을 위해 담수를 거슬러 오르는 언어들을 처음 포획한 곳에서 재포획하였다. 그들은 코마개의 유무와 처음 포획한 장소에 따라 재포획된 언어들을 분류하였다. 과학자들은 언역된 결과와 이들을 비교한 뒤, 통계적으로 가설이 지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한다. 먼저 ㉠ 현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에 직면한다. 의문은 설명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사전 지식에 기초하여 잠정적 설명을 창안한다. 그 후, ㉢ 잠정적 설명에 대한 검증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 자료를 수집하고 ㉤ 이것을 잠정적 설명들로부터 언역된 결과들과 비교한다. 만일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며,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순환적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이때 가설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을 설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7.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27)

- ①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 ② 배경 지식은 과학적 가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
- ③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과학적 지식의 생성이다.
- ④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문은 과학적 탐구의 동기를 유발한다.
- ⑤ 과학자들은 가설이 지지될 때까지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28. 위 글에서 언어의 회귀 방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지역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28)



29. 논리 실증주의자가 <보기>의 글을 읽고 '○○ 이론'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9)

< 보 기 >

○○ 이론은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다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 이론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의 검증과 가능한 예측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① 과학자가 이론으로 주장하였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②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비과학적 이론이다.
  - ③ 다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믿고 있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④ 향후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으므로 비과학적 이론이다.
30. 언어의 회귀에 대한 과학자들의 모든 연구 과정을 녹화한 후, '후각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편집한다고 할 때, ㉠~㉤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3점]
- ① ㉠: 언어가 회귀하는 이유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설명하는 인디언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취재 내용
  - ② ㉡: 뱀장어가 매우 낮은 농도의 무기물을 후각으로 탐지한다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후각 가설을 만들었다는 과학자의 설명
  - ③ ㉢: 시각 가설을 검증한 방법에서 눈을 가리는 데 착안하여, 언어에게 코마개를 부착하고 같은 장소에서 조사하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가 설명하는 내용
  - ④ ㉣: 과학자들이 실험 계획에 따라 두 하천에서 회귀하는 언어를 잡아 표시하여 방류한 후, 재포획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녹화한 내용
  - ⑤ ㉤: 과학자가 언어를 재포획하면서 얻은 실험 결과를 예상된 결과와 비교하면서, 실험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

# 국어 영역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 밖의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꺾듯 냉담(冷淡)헌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A] ㉠황혼의 들이 초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세넙 나니 녹음(綠陰)이 질렸는디  
 나위(羅幃) 적막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꺾듯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뒸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허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희 견화이셔서 님의 옷 지어 내니

[B] ㉡슈품(手品)은 크니와 제도(制度)도 그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허 빅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홀시고  
 천 리 만 리 길홀 뒤라셔 차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마리 동산(東山)의 들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비니

[C]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취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深山) 궁곡(窮谷) 점나그티 밍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빅설(白雪)이 훈 빗친 제  
 사름은 크니와 놀새도 구쳐 있다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날니 므스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롤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 슈둑(日暮簫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터 던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뭍이나 님을 보려 턱 밧고 비겨시니

[D] ㉣양금(鴛鴦)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흐르도 열두 재훈들도 설흔 날  
 저근덧 생각마라 이 시름 낮자하니  
 므옴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켜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허리  
 어와 내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석어디여 뵤나'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나다가  
 향 므든 놀어로 님의 오시 올뜨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호노라

[어휘 풀이]

- \*나위: 비단 휘장.
- \*슈막: 수를 놓은 장막.
- \*부용: 부용장. 연꽃을 수놓은 휘장.
- \*금자희 견화이셔: 금으로 만든 자에 겨누어서.
- \*슈정념: 수정으로 만든 발.
- \*봉황누: 임금님이 계신 곳.
- \*팔황: 온 세상.
- \*폐식: 겨울에 천지가 얼어붙어 생기가 막힘.
- \*쇼상남반: 중국의 소수와 상수가 만나는 곳의 남쪽 언덕. 여기서는 작가의 은거지를 가리킴.
- \*취슈: 푸른 소매.
- \*일모 슈둑: 해 저물 무렵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댄.
- \*던공후: 현악기. 자개로 장식한 공후.
- \*켜터시니: 사무쳤으니.
- \*편작: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명의(名醫).
- \*안나다가: 앓고 다니다가.
- \*조츠려: 좇으려.

31.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1)
- ① [A]~[D]는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③ [B]에서는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C]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D]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2)[3점]
- ① ㉠은 임의 평안을 염려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임의 옷을 만드는 데 들인 화자의 정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와 임 사이에 장애물이 놓여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독수공방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죽음을 가정하여 임과의 사랑을 이루려는 소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3)

< 보 기 >

정철은 「사미인곡」에서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 화자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신하가 임금에 대한 울분을 직접 토로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돌려서 말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대해 임금의 연민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또한 정철은 정치적인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임금의 선정(善政)을 기대하며 신하로서의 책무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사대부로서의 사명감과 연결할 수 있다.

# 국어 영역

- ① '녹음'은 정치적으로 불우한 작가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 ② '위루'를 통해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청광'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작가의 울분이 함축된 것이다.
- ④ '점낫ㄱ티 밍그쇼셔'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 ⑤ '저근덧 생각마라'는 사대부로서의 사명감을 드러낸 것이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에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흑여나 보셨나이까.

잔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34. 작품의 내용과 정서를 고려할 때, (가)의 '나비'와 (나)의 화자가 나누었을 직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
- ① (나)의 화자: 우리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
  - ② (가)의 '나비':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곳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 ③ (나)의 화자: 당신은 이미 그 곳에 가 보지 않았던가요? 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 ④ (가)의 '나비': 저는 너무 순진하게 덤벼들었다가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 ⑤ (나)의 화자: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들은 슬픈가 봅니다.

35. 시인이 시를 창작하면서 시상을 떠올린 과정을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5)[3점]

< 보 기 >

ㄱ. '청무우밭'은 '바다'의 색채와 형태에서 연상된 걸 거야.  
 ㄴ. '물결'과 맞서고 있는 '나비'의 모습에서 '공주'의 속성을 떠올렸을 거야.  
 ㄷ. '꽃이 피지 않아서'는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의 모습에서 연상되었을 거야.  
 ㄹ.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6. (나)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6)
- ①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 ③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 ④ '공연히', '아직도', '흑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국어 영역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호산군이 왈,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활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쪽의 말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한 쪽의 말만 듣고 선불선(善不善)을 가별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야 중횡을 폐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취를 즉각 잡아 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하고,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줄로 하여금 서대취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취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 당한 쪽 전례는 위에서 아는 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서대취 고소를 당함에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취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축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취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취 호흡이 급해지고 땀이 배어 등을 적시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동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허둥지둥하거늘 서대취 왈,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헤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인하여 자손과 노복취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취 나음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 하는지라. 서대취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뇨. 나는 증암절벽 한 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절승처에 산군을 모시니 유현(幽顯)\*의 길이 다른지라. 마음은 항상 그윽하나 승안접사(承顔接事)\*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추한 곳에 왕림하여 의외로 청안(淸眼)을 대하니 패자 예차는 서서히 수작하러니와 일배 박주(薄酒)\*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떠리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취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취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취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취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취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취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부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톡톡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스매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刑杖)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지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취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하매,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취 이처럼 간청하기를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너구리 가로되,

“그러면 ㉠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뇨.”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취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낸 후에, 장자취 화각(畫角) 모반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취 앞에 드리니, 서대취 황금을 가져 오소리 앞으로 밀어 놓으며 가로되,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며 마음에 심히 무정한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정을 표하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 웃으며 왈,

“서대취의 관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오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취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승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장(執杖)할 터이오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취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취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 \* 소진, 장의: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탈변의 정치가.
- \* 패자: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글.
- \* 유현: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과 눈에 띄는 곳.
- \* 승안접사: 웃어른을 만나 뵈는 일.
- \* 박주: 맛이 좋지 못한 술.

# 국어 영역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7)

- ①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④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로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38. 작중 인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8)

- ① 서대취: 두 형졸에 대한 나의 대접이 소홀하여 부끄럽다.
- ② 백호산군: 다람쥐 말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③ 너구리: 이 기회에 서대취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
- ④ 장자취: 형편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⑤ 오소리: 평소 서대취의 행실이 불만스러웠다.

39. ㉠에 내포된 의미로 알맞은 것은? 39)

- ① 죄를 자백하겠다고 하는가?
- ② 음식은 준비했다고 하는가?
- ③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는가?
- ④ 재판정에 나가겠다고 하는가?
- ⑤ 교만함을 사죄하겠다고 하는가?

40. 위 글을 읽고 나서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0)[3점]

- ① 진실성 없이 결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군.
- ② 관(官)의 힘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군.
- ③ 인정세태를 그리기 위해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기법을 사용했군.
- ④ 돈의 힘을 알고서 능란하게 쓸 줄 아는 인물의 처세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절차를 가다롭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재판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치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야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곧 열이 심하게 앓아 누웠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치곤 했다.

서장(序章)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간을 읽다가 문득 긴장하여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하며 노루의 핏자국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 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사실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형의 소설은 전반에 걸쳐서 무거운 긴장과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다.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헤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싶어졌다.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꽤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헤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전달 수 없이 피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화필과 물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집안은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여 에텐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아벨이라든지 카인, 또 그 인간들이 지니고 의미하는 속성들을 증혹적으로 생각해 보곤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전부를 긍정할 수는 없었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 사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에텐의 두 인간과 창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또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은 카인의 질투—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항상 의지로서 신을 두렵게 했을지도 모른다—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분화, 선과 악의 무한정한 배합 비율……. 그러나 감격으로 나의 화필이 ㉣떨리게 하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헤인 이후 나는 벌써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동그스름한, 그러나 튀어 나

# 국어 영역

갈 듯이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띠 놓고(그것은 나에게 있어 참 이상한 방법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을 것이다. 형이 불쑥 나의 화실에 나타났다. 그는 낮부터 취해 있었다. 숯제 나의 일은 ㉠ 제쳐 놓고 학생들에게 매달려 있는 나에게 형이 시비조로 말했다.

“흠!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합 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

㉡ 얼굴의 윤곽만 띠 놓은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형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시작인걸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도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한데, 선생님은 어느 편이지?”

형은 그림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지만 했다.

“흠, 나를 무시하는군. 사람의 안팎은 합리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술가도 이 의사에게 동의해 줄 테지. 그렇다면 내 애기도 조금은 맞는 데가 있을지 몰라. 어때, 말해 볼까?”

형은 도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무엇인가 열심히이라는,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A]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리고 입은 좀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은—이건 순전히 나의 생각이지만, 선(線)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상하게도 형은 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

41.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1)

-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 ④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42.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42)[3점]

<보 기>

- ㄱ. 형이 소설을 쓴다.
- ㄴ. 동생이 해인과 헤어진다.
- ㄷ. 동생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 ㄹ.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ㄷ-ㄱ-ㄹ
- ④ ㄴ-ㄷ-ㄹ-ㄱ
- ⑤ ㄷ-ㄹ-ㄱ-ㄴ

43. ㉠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3)

- 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아직은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
- ② 종교적 깨달음의 감격을 누리려고 싶지만, 아직은 인간적인 한계가 크다.
- ③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 ④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 ⑤ 그림에 몰두하여 해인과 이별한 상처를 치유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

4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4)

- ① 동생의 예술적 견해를 집약해서 보여 준다.
- ②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형이 동생의 그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 ④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암시한다.
- ⑤ 동생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형의 의식을 암시한다.

45. 위 글과 <보기>의 ㉠~㉢를 각각 대응시켰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45)

<보 기>

산을 한 굽이 돌아서자 날이 벌써 ㉠ 저물어 가고 있었다. 아침 해가 앞산 위에 떴나 보다 하면 벌써 뒷산에서는 해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산골은 날씨 변화가 심해서 땅거미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비바람이 ㉡ 치기 시작했다. 친구가 ㉢ 그려 준 약도를 가지고 나는 산 너머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친구의 집을 찾아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 중턱을 지나면서 젖은 몸이 ㉣ 떨러 오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사를 ㉤ 제치고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은 산길을 타는 고통을 잊게 했고 한층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②
- 06 ③ 07 ③ 08 ③ 09 ③ 10 ④
- 11 ② 12 ④ 13 ① 14 ② 15 ⑤
- 16 ② 17 ⑤ 18 ④ 19 ① 20 ⑤
- 21 ② 22 ② 23 ① 24 ③ 25 ④
- 26 ③ 27 ① 28 ② 29 ⑤ 30 ①
- 31 ④ 32 ① 33 ④ 34 ③ 35 ②
- 36 ② 37 ⑤ 38 ① 39 ③ 40 ⑤
- 41 ③ 42 ④ 43 ④ 44 ① 45 ②

1) ㉠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는 화법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언어적 관습이나 규범을 고려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구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문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다른 화법의 구두 언어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대화 참여자들이 시·공간적 상황을 함께하고 있으므로 의문이 생겼을 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즉각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③ 승연과 정훈은 처음에는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만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예방하는 방법까지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서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화법의 상호 교섭적 성격을 잘 보여 준다.

④ 화법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형성·유지·발전시키는 기능도 하게 되는데, ㉡은 이러한 대인 관계적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 제시된 도표는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도표를 통해 현재의 일부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①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료의 조사 연도뿐만 아니라 조사 기관을 밝힘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② 이 대화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예방책을 다루고 있는데, 인터넷에 중독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인터넷 중독 대책과 관련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이 대화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방책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보충할 수 있다.

④ 발표자들의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표를 제시하는 것은 발표를 흥미 있게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화에서처럼 자신들의 진단표를 전체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토의 참가자들은 먼저 청소년 가출에 따른 문제점을 발언하고, 두 번째로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발언한 의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① 사회자는 참가자들에게 먼저 청소년 가출에 따른 문제점을 발언하게 하고, 두 번째로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 대해 발언하게 했다. 그러므로 사회자는 토의 참가자들에게 의제를 제시한 뒤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청중들의 질문과 의견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청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③ '김 소장'은 청소년 가출에 따른 문제점으로 청소년 가출이 증가하면서 가출 청소년의 범죄 행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청소년 가출에 따른 문제점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가정의 문제로 보고 청소년을 가출하게 만드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박 교사'는 청소년 가출이 청소년 개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 가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출의 원인을 학교에서 찾았다. 그러므로 '김 소장'과 '박 교사'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④ '김 소장'은 경찰청 통계와 자신이 근무하는 컴퓨터에 찾아온 가출 청소년과의 상담을 활용하여, 청소년 가출에 따른 문제점과 청소년 가출 원인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박 교사'는 자신이 상담한 경험을 활용하여 청소년 가출 원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그러므로 토의 참가자인 '김 소장'과 '박 교사'는 자신의 경험이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발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김 소장은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돈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없애면 가출 청소년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김 소장'은 '부모님과 소통 부족으로 생기는 갈등'이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부모들에게 '부모님과 소통 부족으로 생기는 갈등'이 청소년 가출의 원인인 것을 알리는 캠페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부족을 인식시키고 개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부족이 개선되면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② '김 소장'의 발언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을 가출하게 만드는 가정의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면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④ '박 교사'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 중 하나로 '자유롭지 못한 학교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들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박 교사'는 가출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품성을 함양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으며 가출 청소년의 가출 기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이 능력과 품성을 기르면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이 필요하다.

5) 수학 공부 많이 했느냐는 병만의 물음에 정수는 아마 자신의 몸을 꼭 짜면 숫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므로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지만, 자신이 그만큼 수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표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러 격률

을 위반한 것이다.

① 키가 몇이냐는 갑숙의 물음에 을화는 불필요한 정보인 자기 언니의 키까지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질의 격률이 아니라 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③ 어디에 가는 길이었냐는 무진의 물음에 기주는 알아서 뭐 하나고 따지듯 되묻고 있다. 이는 질의 격률이 아니라 태도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④ 돈을 빌려 달라는 경민의 말을 들은 신지는 그러겠다고거나 싫다거나 하지 않고, 문제집을 사느라 용돈이 바닥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는 신지가 관련성의 격률을 일부러 어김으로써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자신의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한 것이다.

⑤ 볼펜을 좀 주워 달라는 임호의 부탁에 대해 계상은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라고 묻고 있다. 이는 부탁을 들어주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또 임호가 공손하게 한 부탁에 대해 쏘아붙이듯 대답한 것이므로 태도의 격률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이 글은 앞부분에서 동일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다르게 표현된 그래프를 비교하고, 그것이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시각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통계를 근거로 하는 글을 접할 때 비판적인 수용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①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오른쪽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과장되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글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통계 수치를 종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는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독자에게 친근함을 전달할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7) 요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㉔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㉑의 앞의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고, ㉒의 뒤는 두 그래프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㉑은 '그러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㉓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이고 있다. 보조사는 앞말과 붙여서 써야 하므로, '정보만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㉔은 선택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든'이 사용되어야 한다. '-던'은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⑤ '기만하다'는 '남을 속여 넘기다.'의 뜻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단어이므로, ㉔에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㉔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다.'라는 의미의 '왜곡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8) <보기 1>의 글쓰기 계획에 따라 작성된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서 글쓰기 계획에 제시된 글의 목적과 서술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또 이러한 내용이 예상 독자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력 수급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기 절약의 방법을 안내하는 글은 주어진

글의 형식과 글쓰기 계획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전력 수급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으나, 글의 목적에 언급된 전기 절약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학생들에게 전력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글은 글쓰기 계획에 제시된 글의 목적이나 서술 방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 독자의 수준에도 적합하지 않다. 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형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정부 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는 있으나 '전력 수급 위기와 전기 절약'이라는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다. 글쓰기 계획에 제시된 글의 목적이나 서술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기업 관계자에게 전력 수급 위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전력 수급 위기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소개하는 것은 글쓰기 계획에 제시된 글의 목적이나 서술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9) (다)에는 시간대별 전력 사용 동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력 수급 위기가 심각해지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하루 중 최대 전력 수요에 해당하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전력 사용을 자제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안은 전력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일 뿐 전력 수급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력 공급 예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료 활용 계획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그래프에 제시된 두 선의 격차가 좁아지는 것은 곧 전력 수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각한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시각적 자료인 그래프를 활용해 전달하게 되면, 독자들이 관련 내용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라)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방법과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전기 절약을 위해 유사한 사례를 추가하여 제시한다면 글쓰기 계획에 제시된 글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전력 수급 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각각의 자료에는 '최대 전력 수요', '공급 능력' 혹은 '공급 예비율'과 관련하여 유사한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와 (나) 중 필요에 따라 하나만 활용된다 하더라도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제시하는 데 무리가 없다.

10) III-(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더니 근섬유 수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근섬유 수와 지구력 사이의 관계가 전제된다면 '지구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결론은 III-(가)로부터 도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했더니 근섬유 수가 늘어났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지구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반면 ⑤와 같은 보충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IV-(1)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반드시 논리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① 보고서의 일반적인 구성은 '서론-본론-결론'이다. 서론에서는 실험이나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제시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연구 검토, 주요 용어 정의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보기>에서는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에서 실시되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라는 조언은 적절하다.

② '각종 운동 기구 등 필요한 물품 일체'라는 식으로 준비물을 막연하게 제시하면 그 연구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근섬유 수나 젖산 축적량을 측정하는 데는 어떤 실험 도구들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적어 주어야 할 것이다.

③ <보기>에는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곧바로 연구 결과를 기록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 어떤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해야만 그 연구 설계 및 진행의 타당성을 점검받을 수 있다.

⑤ 연구의 제목에 따르면 이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연구 결과의 기록은 근섬유 수의 증가와 젖산 축적량의 변화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결론은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발생한 근섬유 수 증가와 젖산 축적량의 변화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결론은 근섬유 수의 증가가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근섬유 수의 증가와 젖산 축적량의 변화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적절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11)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에서 '밝혀졌다'는 용언의 어간 '밝히-'에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 과거 시제 전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밝혀졌다'는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에서 '안겼다'는 용언의 어간 '안-'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것이고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에서 '잡아졌다'는 용언의 어간 '잡-'에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든 예는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 참고) 밝(어근)+히(사동접미사)+어지다(장형 피동)

①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와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각각 '아기를', '진실을', '마리를'과 같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며 피동문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 '엄마', '김 형사', '열 명'은 피동문에서 '엄마에게', '김 형사에', '열 명에게'와 같이 부사격조사에게, '에'가 붙어 있다.

④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의 경우는 '포수 열 명이 모두 함께 토끼 한 마리만을 잡다.'와 '포수 열 명이 각각 토끼 한 마리씩 잡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첫 번째 의미만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통해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는 엄마의 행위로 아기가 엄마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는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의 행위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는 토끼가 포수 열 명에게 잡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통해서 피동문의 주어는 주체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동 표현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12) 소리대로 적는 것, 즉 표음적 표기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글을 쓰는 사람에게 편리한 표기 방식이다. 또 어법대로 적는 것, 즉 표의적 표기는 글을 읽는 사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표기 방식이다. 따라서 '굴이'와 '칼을'과 같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은 표의적 표기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④는 말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 편리한 사람을 의미한다. '글을 쓰는 사람'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면, 일일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에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할 때 유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는 것은 곧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의적 표기 방식은 곧 읽는 사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굴이'와 '칼을'은 어법대로 적은 예로서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표의적 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나는 수학을, 내 짝은 국어를 좋아한다.'는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내 짝은 국어를 좋아한다.'에서 동일한 서술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 절의 '좋아하고'를 생략한 것인데, 이는 꼭 필요하지 않은 서술어의 자연스러운 생략이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의 예로는 '수학여행 계획과 중간고사를 잘 치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치르다'는 '중간고사를'이라는 목적어와 호응한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수학여행 계획'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따라서 '수학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중간고사를 잘 치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처럼 써야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이 된다.

② '우리는 가끔 가까운 친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에게 실망하기도 한다.'처럼 써야 한다. '실망하다'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필요한데도 부적절하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진가'라는 말이 '참된 값어치'라는 뜻이므로, '참된 진가'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관형어가 사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④ 서술어가 '하고 싶은 말은'과 호응하도록 '~ 조용히 공부하자는 것이다.'로 고쳐야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⑤ '안 된다'와 호응하지 않는 부사어 '만드시'를 '절대로', '결코' 등으로 고쳐야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14) '대화 2'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선희 아빠'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한 호칭에 해당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빠', 혹은 '어보'라는 호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① 아들이 살아 계신 자기의 아버지를 지칭할 때에는 '아버지', 또는 '가친'으로 지칭해야 한다. '선친'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③'삼촌'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쓰는 말이므로 형수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형수의 자식들이 사용해야 한다. 형수는 시동생에게 '도련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④'저희'는 복수 대명사인 '우리'의 낮춤말이다. 따라서 '저희 나라'라고 할 때 '저희'라는 지칭어는 말하는 당사자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포함된 집단 전체, 즉 국민 전체를 낮추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저희 나라'의 '저희'는 '우리'라는 지칭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⑤'빙장어른'은 남의 장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부하 직원은 자신의 장인에 대한 지칭어로 '장인어른'을 사용해야 한다.

15) ⑤

㉞은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표시해주는 담화표지이다.

①'이번에는'은 지금까지의 화제와는 다른 화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알려 주는 담화 표지이다.

②'우선'은 '어떤 일에 앞서서'라는 뜻으로 여러 내용 중에서 첫번째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알려 주는 담화 표지이다.

③'따라서'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인데, 여기에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담화 표지로 쓰이고 있다.

④'그것'은 앞에서 제시된 '응회암'을 지시하는 말인데, 이러한 지시어를 사용하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글의 응집성을 갖추게 된다.

16) 현대 국어에서는 초성에 'ㄷ', 'ㅌ'같은 합용 병서를 사용할 수 없고 'ㄱ', 'ㄷ'같은 각자 병서만 사용된다. 그러나 'ㄹ', 'ㄴ'등에서 보듯 현대 국어에서도 중성에는 합용 병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①'ㄱ', 'ㅌ', 'ㄷ'은 모두 입술소리이므로, ㉠에 의하면 'ㄱ', 'ㄷ', 'ㅇ'등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보기>에서 '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했으므로 'ㄱ', 'ㄷ', 'ㅇ'등이 'ㄱ'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③ ㉡에 관한 설명에서 언급한 모음 '중·'를 제외한 모든 중성자는 현대 국어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위치 또한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도 'ㄱ', 'ㄷ', 'ㄴ', 'ㄹ'은 초성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ㄱ', 'ㄷ', 'ㄴ', 'ㄹ'은 초성자의 오른쪽에 붙여 쓰기 때문이다.

④'가'처럼 초성과 중성만으로 이루어진 음절, '아'처럼 중성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음을 감안하면, ㉢은 모든 음절이 초·중·중성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오늘날, 어두운 때인 '밤[夜]'의 발음은 짧은소리인 [ㅂ]이고 먹는 열매인 '밤[栗]'의 발음은 긴소리인 [ㅂ:]이므로, <보기>에 의하면 중세 국어에서 '밤[ㅂ]'은 평성 혹은 거성이었으며, '밤[ㅂ:]'은 상성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단어의 방점 표기는 서로 달랐을 것이다.

17) 정답해설 : 분청사기는 고려 왕조가 쇠퇴한 가운데 민요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새로운 도자 양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청사기가 상감청자보다 뛰어난 기법을 획득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분장 기법들을 사용한 것뿐이다.

[오답피하기] ①분청사기는 실용적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예술적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②상감청자가 관요에서 만들어진데 비해 분

청사기는 민요에서 만들어졌다. ③왕실이나 관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품질 관리를 하기도 했다. ④서민들의 생활 용기뿐 아니라 왕실이나 관에서도 사용하였다.

18) 정답해설 : ㉠의 의미는 '세상에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을 뜻한다. ④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로서의 이름을 뜻한다. 나머지는 모두 세상에 알려진 명성이나 평판을 의미한다.

19) 정답해설 : 분청사기 밑에 장인의 이름을 쓰게 함으로써 도자 생산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아울러 도공들에게 독특한 장인 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창작 욕구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예술적 조형미를 분청사기가 가질 수 있도록 촉진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피하기] ②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이름을 내걸고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④자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터리로 만들 수가 없었다. ⑤도자의 품질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20) 정답해설 : 기술적 모순이건 물리적 모순이건 하나의 기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어느 것이 더 복잡한 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이 글의 정보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든 예로는 기술적 모순은 비행기 엔진과 관련되어 있고, 물리적 모순은 비행기 바퀴와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반드시 이것이 둘 사이의 복잡한 기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기술적 모순이나 물리적 모순을 쉽게 알아낼 수 없다고 하였다. ②40가지 발명의 원리에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③기술적 모순의 바탕에 물리적 모순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④비행기의 바퀴의 경우 이착륙시에는 필요하지만 비행 중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때는 바퀴를 동체에 접어넣는다.

21) 정답해설 : [A]는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발전시킬 경우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를 든 것이다. 즉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을 올려야 하지만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엔진의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진다.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면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비행기의 속도에 있어서 출력을 높이는 것과 엔진의 무게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모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2) 정답해설 : 비행기에 복합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무게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속도가 떨어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에 의한 분리는 비행기의 바퀴를 이착륙할 때와 비행할 때의 시간에 따라 달리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행기 바퀴로 인한 공기 저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비행기의 바퀴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기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의 결과는 무게의 감소가 되고, ㉡의 결과는 공기 저

항의 감소가 된다.

[오답피하기] 바퀴의 제거는 ㉠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의 구체적 행위이기 때문에 ㉠은 답이 되지 않는다.

23) 정답해설 : 위 글을 근거로 하여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를 만들려면 위 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발명의 원리인 트리즈는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과학은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발명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 모순을 극복하는 원리가 트리즈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24)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은 남녀의 성차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다. 비록 성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글쓴이는 이 차이가 오직 평균적이기에 사람을 남녀로서가 아니라 개별체로 보고 개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논쟁의 핵심이 아니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도 글쓴이는 차별을 반대함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②성별의 차이의 원인은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것이고, 만약 남녀의 차이가 있고 원인이 밝혀진다면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간의 차별을 옹호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25) 정답해설 : (라)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논지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쓴이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즉, 이는 성차가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이고, 이로부터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6) 정답해설 : ㉠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볼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남녀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속된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속된 집단이란 남자 또는 여자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피하기] ①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인격에 대한 차별과 평등이 아니라 '남녀의 차별'이라 할 수 있다. ②정답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어 함정의 요소가 강하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과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평등은 본문에서보다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본문에서는 '남녀의 차별'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이란 남녀간의 성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 성인과 미성년의 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 등 그 범주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27) 정답해설 : 6문단에서 필자는 의문스러운 현상의 해석을 위해서 우선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사전 지식을 기초하여 잠정적 설명을 창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전 지식 즉 기준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없다면 새로운 과학적 가설을 생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경 지식은 과학적 가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진

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1문단에서 과학적 지식의 생성은 과학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6문단에서 가설 설정, 실험, 관찰, 비교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생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6문단에서 현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에 직면할 때 과학자들이 과학적 탐구 과정을 시작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⑤2~5문단에서 연어의 회귀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6문단에서 가설이 지지되기까지 가설 생성, 자료 수집과 비교 등 검증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8) 정답해설 : 연어의 포획 및 방류와 관련된 3문단을 보면 연어를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인 담수에 방류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포크와 이사과 하천은 서로 만나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하며 방류 지점은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류 지점은 바다가 아닌 담수 지점이어야 한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한 그림이 된다.

29) 정답해설 :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적 지식의 생성 그리고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찰과 실험 등 경험적 검증 가능성의 적용 여부이다. <보기>에는 00이론이 검증이 가능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으므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면 00이론에 대해서 실험과 관찰이 불가능한 비과학적 이론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30) 정답해설 : 현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은 연어가 자신이 방류된 곳으로 회귀하는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품게 되는 의문과 관련되는 것이지 인디언의 사고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인디언들은 연어의 회귀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과학적인 의문을 품지 않는다. 따라서 인디언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적 배경을 취제한 내용은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최초의 계기로 작용하는 ㉠과 관련하여 제시될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② 사전 지식이 바로 백장어의 후각 가설이고 잠정적 설명이 바로 연어의 회귀성을 후각 가설을 적용한 설명이다. ③ ④ '검증 방법'을 생각한 것은 가설에 따라 연어를 대상으로 실행하려고 한 실험 및 관찰 계획에 해당하고 '자료 수집'은 이에 따라 연어를 대상으로 실제 실행한 내용들을 기록 및 녹화한 것에 해당한다. ⑤ '이것'은 실제 연어의 재포획하면서 얻은 실험 결과이고 '잠정적 설명'으로부터 연역된 결과'는 연어의 회귀성을 후각 가설로 미리 설명한 예상된 결과이므로 이를 비교하면 그 가설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실험 결과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31) ④

[C]에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A]~[D]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A]의 '암향'은 그옥이 풍기는 매화의 향기를 말한다. '암향'은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매화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웃'은 입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소재

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더욱 닳아 으스스히'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2) ①

㉠은 황혼에 달이 쫓아와 (화자의) 베갯머리에 비치는 것으로 달을 임처럼 인식하는 상황이다. 입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입의 평안을 바라는 내용은 아니다.

㉡ 자신이 입을 위해 만든 옷이 솜씨와 격식을 아울러 갖추었음을 밝히며 입에 대한 정성을 드러낸 것이다.

㉢ '산', '구름'은 화자와 입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혹은 간신이나 정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초도 출사'라는 축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독수공방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입의 옷에 옮겨 가겠다는 것은 입과의 사랑을 이루려는 소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3) ④

'점나뭇티 땡그쇼셔'는 온 세상의 깊은 산골짜기까지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① '녹음'은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② '위루'는 높은 누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성별을 알려주는 소재는 아니다.

③ '청광'은 임금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기원이 담긴 소재이다.

⑤ '저근덧 생각마라'는 시름을 잊기 위해 입에 대한 생각을 잠시라도 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사망감과는 관련이 없다.

34) 정답해설 : (가)의 '흰나비'가 '그 곳'에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곳'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세계인 줄로 착각한 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흰나비'가 '그 곳'에 갔다가 겪은 것은 긍정적 상황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받은 채 절망을 안고 돌아와야 하는 부정적 상황이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그 곳'을 희망의 공간으로 파악한 것은 잘못이다.

35) 정답해설 : '청무우밭'은 생명성을 지닌 공간이고, '바다'는 무생명성을 상징하므로 둘은 대립적 공간이지만, 색채의 유사성으로 인해 '흰나비'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3연에서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겹치면서 '바다(= 물결)'에 절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시각의 축약화(⇒공감각적 표현)가 일어나고 있다.

[오답피하기] '공주는 연약한 '나비'의 이미지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물결'과 맞서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꽃이 피지 않아서'에서의 '꽃'은 '청무우밭'이라는 소재에서 연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6) 정답해설 : 우선 시적 화자는 고향을 떠난 상태에서, 고향이 있어도 현실적인 귀향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고 상실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존재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화자에게, '주인 집 늙은이나 '행인', 떠돌이 '장꾼들' 등은 화자가 떠난 동안에 있었던, 화자가 모르는 고향의 소식이나 정취를 들려 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와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37) 정답해설 : 지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드러나 있다. 하나는 백호산군이 다람쥐의 말을 듣고 오소리와 너구리 형제로 하여금 서대취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취의 집에 찾아가 백호산군의 명령을 전하면서 서대취에게 음식을 대접받고 황금을 받는 장면이다. 두 장면에서 오소리는 각기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백호산군의 명령을 받은 후에 오소리는 너구리에게 서대취가 교만하여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하면서 분풀이해야 한다고 버르지만 서대취의 대접을 받은 후에 분노했던 마음이 진정되어 서대취에게 서대취를 고소한 다람쥐를 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전개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등과 같이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여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평을 하는 부분이 있다. ②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취 집으로 가는 오소리와 너구리의 모습, 오소리와 너구리를 달래기 위해 노력하는 서대취와 장자취 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회상 형식으로 진술되기도 않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부분도 없다. ④ 비장감이란 슬픔과 장엄함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므로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38) 정답해설 : 서대취는 오소리와 너구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후하게 대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은 정성이라고 말하면서 마련한 황금을 준다. 따라서 오소리와 너구리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고 한 서대취가 대접이 소홀하여 부끄럽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② 소장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토틈 실속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성인도 권도하는 것, 즉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 오소리에게 두 번 살펴 달라 부탁하고 있다. ⑤ 서대취를 잡아 자신과 너구리를 팔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39) 정답해설 : ㉠은 너구리의 말인데 너구리는 오직 서대취의 재물에 관심을 갖고 뇌물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에 나타난 '전례'는 오소리가 앞에서 언급하는데, 소송당한 쪽의 전례를 말하면서 수백 냥이 아니면 놓아주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재물과 관련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40) 정답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 재판은 백호산군이 담당하고 있다. 백호산군은 소송을 제기한 다람쥐만이 아니라 소송을 당한 서대취도 불러 사정을 들은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을 괴롭히는 불합리한 재판 제도를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백호산군이 따지는 절차는 잘못을 제대로 가리기 위한 공정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너구리는 서대취로부터 재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노한 척하며 말하고 있다. ② 오소리와 너구리가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취의 집인 토굴 밖에서 큰 소리로 서대취를 부르며 나올 것을 독촉하고 있다. ③ 우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인간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황금 스무 냥을 주어

오소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대주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41) 정답해설 : 이 작품은 ‘형’과 ‘나’가 겪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형’은 소설 쓰기를 통해, ‘나’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아픔을 치유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내면 심리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며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형’의 소설 이야기와 ‘나’의 그림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④ 이 글에는 ‘나’의 서술 부분과 ‘형’의 대화 부분에서 줄표와 줄임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중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와 인물(‘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⑤ 앞부분에는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 있고, 뒷부분에는 인물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가 나타나 있다.

42) 정답해설 : 이 글에는 형이 소설을 쓰는 내용과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서로 연관이 없는 듯한 두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형이 소설을 쓰기 전날 나의 화실에 불쑥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아 두 행위는 연관이 있으며 두 인물의 심리적 상태와도 연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먼저 동생인 내가 헤인과 헤어진 후(ㄱ), 이전부터 갈망해 오던 인간의 근원에 대한 그림의 충동을 내가 새삼 느껴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ㄷ) 하지만 윤곽만을 떠 놓은 상태였을 때, 형이 나의 화실을 방문했고(ㄴ), 바로 다음날 형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ㄷ)

43) 정답해설 : 이 글에서 ‘형’과 같은 절실한 체험이 없는 ‘나’는 인간의 원형적 얼굴을 그려 내려고 하지만 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에서 ‘얼굴의 윤곽만 떠’ 놓았다는 것은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4) 정답해설 : [A]의 진술은 동생의 그림을 본 형의 반응일 뿐 동생의 예술적 견해가 집약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생은 자신의 예술적 견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동생의 그림은 어떤 얼굴에 대한 강한 예감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 모습과 만날 수 없었기에 외곽선만 떠 놓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동생의 그림 속에 동생의 예술적 견해가 집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형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새로 탄생한 인간의 눈과 입은 좀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다는 진술인데 이는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말한 것으로, 모호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자기 삶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갖기 원하는 형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선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진술인데 이는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그렸다는 동생의 심리 상태와 부합하는 진술이다. 따라서 형은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은, 분명한 모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긴장만 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찾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림에서 형이 찾아낸 ‘의미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5) 문제해설 : 이 글에서 ‘치다’는 ‘어떤 대상이 흔들려서 물결 같은 것이 일다’는 뜻으로 쓰인데 비해 <보기>에서 ‘치다’는 ‘비, 눈, 먼개, 물결, 바람 따위가 세차게 뿌리거나 움직이다’의 의미로 쓰였다.